

조선인 중심의 음악회장, 경성(京城) 기독교청년회관*

조 윤 영

1. 들어가며
2. 조선인의 문화중심지, 종로(鐘路)와 기독교청년회관
3. 기독교청년회관 음악회
4. 조선인 중심 음악회의 특징
 - 1) 근대적 도시경험
 - 2) 식민지권력
 - 3) 상업주의
5. 나가며

* 이 논문은 연구자의 박사논문(2018년 2월)의 일부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을 밝힌다.

개 요

식민지경성의 종로는 조선인들의 중요한 활동공간이었다. 조선인들은 전통과 근대의 접경이자 일제하 재조(在朝)일본인들과 명확한 공간 구분이 이루어 졌던 종로에서 민족, 사회, 계몽, 문화운동 등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연주공간이 필요하던 음악부분에서도 종로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다양한 전공의 양악전문가들이 출현하고 양악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조선인들이 증가하면서 음악회를 누리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성에는 음악회를 위하여 건립된 음악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은 기독교청년회관, 천도교당, 경성공회당 등의 다목적 강당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그 중 경성에서 조선인 중심의 연주장소로 주목받던 기독교청년회관은 1920년대 문화행사의 주축이 될 정도로 음악회를 비롯하여 각종 공연, 강연, 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경성시민들의 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연구는 1920년부터 1935년까지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음악회 관련 각종 인쇄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조선인들이 음악회 참여를 통해 경험하는 근대 도시의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고, 식민지 상황에서 음악회장이 갖는 양가적인 정치적 역할, 음악이라는 근대적 유행물을 경험하는 조선인들이 근대화에 대해 품는 욕망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기독교청년회관, 음악회장, 음악문화, 식민지경성, 종로

1. 들어가며

식민지경성의 종로는 조선인들의 중요한 활동공간이었다. 조선인들은 전통과 근대의 접경이자 일제하 재조(在朝)일본인들과의 공간 구분¹⁾이 명확한 종로에서 민족, 사회, 계몽, 문화운동 등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특히 연주공간이 필요하던 음악부분에서도 종로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다양한 전공의 양악전문가들이 출현하고 양악을 향유하고 싶어 하는 조선인들이 증가하면서 음악회를 누리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성에는 음악회를 위하여 건립된 음악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연은 기독교청년회관, 천도교당, 경성공회당 등의 다목적 강당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그 중 경성에서 조선인 중심의 연주장소로 각광받던 기독교청년회관은 1908년 종로 한복판에 960평의 부지와 600여 평의 3층 건물로 완공되어, 종교와 상관없이 근대 지식인들과 청년들의 활동 근거지를 마련해주며 조선인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10년대 중반 증축 이후, 기독교청년회관은 1920년대 문화행사의 주축이 될 정도로 음악회뿐 아니라 각종 공연, 강연, 모임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경성시민들의 문화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양악사에서 연주공간에 대한 연구는 주목받지 못했다.²⁾ 그러나

-
- 1) 경성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을 재조일본인으로 통칭하겠다. 이들의 주요 활동은 지금의 충무로 일대인 혼마치(本町)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2) 연주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김희진의 “한국의 근대 연주회장 연구: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1)이 확인된다. 이 논문은 식민지시기 『매일신보』 기사를 통한 기독교청년회관, 경성공회당, 부민관에 대한 최초의 자료조사로서 의의가 있다. 그 외 공연 장소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순주,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1930년대 경성부민관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6 (2014), 1-36과 황병주, “근대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식민지시대 문학 장의 동향: 식민지기 공적(公的) 공간(空間)의 등장과 공회당(公會堂),” 『대동문화연구』 69 (2010), 261-307 등이 있다.

양악을 직접적으로 체현할 수 있는 공간 연구는 양악 수용을 이해하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에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양악이 도약하는 1920년대에 조선인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연주회가 개최된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을 중심으로 당시의 음악문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조선인의 활동 거점인 기독교청년회관의 중요성을 부각한 후 이 무대를 통해 양악을 체현 하던 음악가와 음악회를 만드는 주최자, 양악을 향유하는 조선인들까지 다양한 수용자의 관점에서 음악회라는 행위를 다각도로 들여다보려 한다. 이를 위해, 1920년부터 1935년까지의³⁾ 신문기사와 잡지, 르포의 기록 자료, 음악회 관련 서류나 사진, 회고 등의 자료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신문자료는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동아일보사가 1920년 종로에 설립되어 2-30년대 조선인들의 문화를 발 빠르게 흡수하여 조선인들의 생각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반영했을 것이라 사료되기 때문이다.⁴⁾ 또한 선행연구로 이미 언급한 김희진의 논문에서 동시대의 신문이자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기독교청년회관을 다루었기 때문에 두 신문간의 비교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920년대 근대 도시의 상징이었던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 관한 연구는 양악 수용사 안에서 음악과 공간의 관계를 추적하여 당시 조선인 중심의 경성 음악문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기간을 1920년부터 1935년으로 한정 한 이유는 음악회가 활발하게 개최되는 1920년대와 급격히 감소하는 1930년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부민관이 완공되는 1935년 말부터 대부분의 음악회는 부민관에서 이루어진다.

4) 영문학자 조용만(趙容萬, 1909-1995)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새로 온 사이토 총독이 조선 사람들한테 신문을 발행하도록 허가를 해서 동아, 조선, 시사신보 등 3개 신문이 동시에 나왔는데 그중 제일 인기 있는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였다. 우리 집에서 이 신문을 구독하기로 했는데 저녁 때 이 신문이 오면 서로 먼저 보려고 법석을 떨었고 이튿날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빌려갔다”고 술회하였다. 조용만, 『경성야화』 (도서출판 창, 1992), 99. 이후 이 글의 모든 인용은 현대표기로 고쳐 인용하겠다.

2. 조선인의 문화중심지, 종로(鐘路)와 기독교청년회관

일제가 조선을 점령하면서, 경성은 조선인 중심 구역인 종로와 일본인 중심 구역인 혼마치(本町)로 재편되었다. 종로는 대표적인 조선인 거리로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접경이었다.⁵⁾ 또한 민족운동, 독립운동, 계몽 및 문화운동 등의 거점이자 야시(夜市)⁶⁾, 탑골공원, 전차의 길목 등에서 각계 각층의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장이었다. 그 외에도 학생^{6거리}⁷⁾ 중심의 학교들, 대동서림, 한남서림 등의 서점, 종로도서관, 각종 민족문화 및 종교단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사와 『개벽』, 『별건곤』 등의 잡지사, 영창서관, 한성도서주식회사 등 출판사, 광문서시, 보성사 등 인쇄소, 조선극장, 우미관 등 극장, 탑골공원 등이 밀집되어 조선인의 문화적 삶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⁸⁾

이러한 종로의 한복판 종로 2정목 9번지에 1908년 건립된 기독교청년회⁹⁾

-
- 5) 조선시대 육의전이 있던 운중가(雲從街) 종로는 대한제국을 거쳐 식민지기에도 경성의 상업중심지였다. 종로는 태조(太祖) 4년(1395)에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종루를 세우고 종(鐘)을 달면서부터 이름이 붙여질 만큼 조선인에게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유광렬, ‘종로네거리,’ 『별건곤』 (1929. 9.) 66.)
- 6) 종로 야시는 1916년에 시작되어 4월~10월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종로2가에서 종로3가의 남쪽 큰길에 노점을 열고 물건을 팔던 간이시장으로 조선인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혜안, 2004), 78.
- 7) “안동(安洞) 육(六)거리. 북촌일대의 조선학생들이 대부분이 이 길을 거쳐 통학하는 고로 아침 등교시간이면 학생들로 꽉 차는 까닭으로 여기를 학생 육거리라 한다네.” (일기자, ‘이일동안에 서울구경 골고로 하는 법,’ 『별건곤』 (1929. 9), 61-63.
- 8) “문화의 중심. 경성의 문화는 어디가 중심일까 (중략) 보전, 법전, 고등, 의전, 고등공업 등의 몇 종 전문학교가 있고, 동아일보사, 조선지광사, 개벽사 등의 언론기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고 청년회관이 있으며 (중략) 경성문화의 중심이 종로이북의 중앙부에 있다고 할까. 꺾꺾.” 소춘, ‘서울중심세력의 유동,’ 『개벽』 (1924. 6), 58.
- 9) 기독교청년회에서는 1903년 청년회를 조직하여 청년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어는 큰 인기를 얻어 전국의 여러 사회단체에서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에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불만을 표시한 고시문을 공지했다고 하니 청년이라는 개념이 조선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것으로 보인다.

의 기독교청년회관¹⁰⁾은 경성의 대표적인 근대식 건물이었다. 회관 안에는 강당, 운동실, 교실, 도서실, 공업실습실, 식당, 목욕장, 사진부, 사무소, 소년부 등의 최신식 시설을 갖추었으며,¹¹⁾ 그 중 강당은 강연회나 음악회처럼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며 문화 활동의 장을 열었다.

기독교청년회관 강당은 언제나 강연회, 집회, 음악회 등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언론인 김을한(金乙漢, 1906-1992)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학교가 끝나면 매일같이 청년회관에 가서 놀았다고 회고하며 “서구적인 신풍(新風)이 떠도는 향기로운 분위기”의 청년회관을 추억하였다. 이곳에서 서양음악도 처음 듣게 되었다는 그의 기억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기독교청년회관은 새로운 서구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이자 그것을 체현하는 공간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시대의 청년회는 신문화의 중개처였으니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탁구, 농구, 야구, 축구, 기계체조 등의 온갖 운동경기를 맨 처음 소개한 것을 비롯해서 근대식 음악회나 연설회를 시작한 것도 청년회이며 실업교육과 영어학교를 최초로 개설한 것도 역시 청년회였던 것이다. 필자 자신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처음으로 듣고 “소프라노”나 “테너”의 성악을 듣게 된 것이나 일류 명사들의 연설을 듣고서 감명을 깊게 한 것이나 심지어 지금엔 매일같이 마시는 커피, 차를 비로소 맛보게 된 것도 또한 청년회의 덕분이었

전택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종로서적, 1993), 195-196.

10) 회관의 원래 명칭은 황성기독교청년회관(皇城基督教青年會館)이었다. 그러나 1913년, ‘황제의 성’ 혹은 ‘황제의 나라’를 표현한 ‘황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조선중앙’으로 바꾸어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일제가 대한제국이나 독립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해서 ‘대한’, ‘황성’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진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63-64. 당시 자료를 보면 ‘종로청년회관’, ‘기독교청년회관’, ‘종로기독교청년회관’ 등 다양하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청년회관’으로 통일하겠다.

11) 서울YMCA, 『사진으로 보는 서울YMCA 운동 100년』 (서울YMCA, 2004), 15.

음을 생각한다면 청년회의 위치와 업적을 가히 짐작해 알 수 있을
 줄 안다.¹²⁾

완공 당시 이 회관은 당시 조선인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독립운동가 황현(黃玗, 1855-1910)은 “기독교청년회관이 낙성되었다. (중략) 회관이 낙성되자 지붕 높이가 산 같았는데, 종현의 교회당(명동성당-인용자)과 함께 우뚝 솟아 남북으로 맞섰다. 장안에 가장 커다란 건물이 되었는데, 예부터 공사 관청이나 집 가운데 그만한 건물이 없었다.”¹³⁾며 그 규모에 감탄하였다. 조선총독부 직원이었던 요시가와 분타로(吉川文太郎)¹⁴⁾도 “지금 경성 종로 이 정목에 동양건물 중 힘차고 뛰어나며 굉장한 붉은 벽돌의 회관”¹⁵⁾이 있다고 소개할 정도로 압도적인 서양식 건물의 외형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반면, 서양인들은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식민지조선에서의 역할에 대해 언급하며 지리적, 정치적 중요성까지 강조하였다. 기독교청년회관 간사였던 그레그(G. A. Gregg)는 “청년회관이 우뚝 서게 되었다. 이 웅장한 3층 서구식 벽돌집이 온 시가를 한눈에 내려다보게 되니 이 집이야말로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 집”¹⁶⁾이라고 했으며, 선교사 게일(J. S. Gale, 1863-1937)도 “이 회관은 도시의 심장부에 서 있고 이 나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명동성당과 덕수궁을 제외하고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¹⁷⁾이라고 하며 기독교청년회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

12) 金乙漢, “한국문화와 YMCA(上) 찬란했던 반세기 간의 업적,” 『동아일보』, 1956. 2. 22.

13) 황현 / 허경진 옮김, 『매천야록』 (한양출판, 1995), 400.

14) 1919년 3·1운동 이후에 조선총독부 종교과에서 일하며 『朝鮮の宗教』(1921), 『朝鮮諸宗教』(1922) 등을 저술하였으며 조선총독부에 ‘朝鮮宗敎界 最近의 情勢’(1924)라는 글을 남겼다.

15) “目下 京城鐘路二丁目에 東洋建物中 確雄하고 宏壯한 赤煉瓦의 會館”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3), 291.

16) G. A. Gregg, 「The Annual Report」 (1909. 9. 30.). 전택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134-135에서 재인용.

번 강조하였다.

(사진 1) 기독교청년회관의 모습 (사진제공: 서울YMCA)



기독교청년회관은 기독교라는 종교적 색채를 띤 건물로 보이지만 종교와 상관없이 조선인 모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그 역할을 수행했다. 게일은 국제 본부로 보내는 편지에서 “회관은 상점들과 관가의 중심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대지 역시 훌륭하였기 때문에 누구나가 쉽게 찾아 올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고마웠던 것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든다는 사실이다. (중략) 하류층의 자녀들, 상인들의 자제들, 선비나 양반의 자녀들이 모여와 한 자리에 앉게 되었으며, 밤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다고 기록했다.¹⁸⁾ 이를 통해, 상하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 뚜렷했던 조선인들에게 기독교청년회관은 모든 사람들의 집합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청년회관 안에서는 청년회의 초기부터 청년활동의 일환으로 교육과 사회,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초기부터 야학 형태로

17) “It stands in the heart of the city and the center of the land. It is, next to the Roman Catholic Cathedral, and excepting the New Palace, the most prominent building in the capital.” James Scarth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238-239.

18) YMCA, *J. S. Gale's letter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New York: YMCA, 1905)

시작한 교육 활동은 학관(學館)을 만들기 이전인 1906년부터 시작되어 1907년에 보통과, 어학과, 공업과, 상업과, 야학과로 구분하여 직업교육과 계몽 지식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¹⁹⁾ 1906년의 학생모집 광고를 보면, 역사, 지리, 화학 등을 비롯하여 운동, 음악이 포함되어 있었고,²⁰⁾ 1915년의 수업 과목에는 국어, 영어, 일어, 음악, 상업, 역사, 지리, 산수 등 일반 교육을 비롯하여 목공, 철공, 사진, 제화, 염색 등의 기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²¹⁾ 이곳 출신의 인재들은 식민지조선의 민족운동부터 계몽, 사회운동까지 주도하는 인물들로 성장하였다.²²⁾ 이 당시 교사를 맡았던 홍석후(洪錫厚)와 박서양(朴瑞陽)은 둘 다 제증원의학교 출신이자 기독교인으로 이른 시기부터 서양음악을 접하여 음악에 관심이 높았다. 둘은 같은 시기에 조선정악전습소를 다니며 음악 공부도 하였다. 특히 박서양은 창가에 능해 당시 신문에 이름을 올릴 만큼 음악에 조예가 깊었고,²³⁾ 승동학교에 음악과를 설치하는데 기여하였다.²⁴⁾ 기독교청년회관 안에서의 음악활동에도 이들의 활동이 확인된다. 홍석후는 기독교청년회관 안에 ‘홍석후진찰소’²⁵⁾를 개원할 정도로 기독교청년회관과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는데, 동생 홍난파(洪蘭坡, 1897-1941)가 기독교청년회의 중학부와 조선정악전습소를 다닌 것도 아마

19) 민경배, 『서울YMCA운동 100년사』 (서울YMCA, 2004), 94.

20) “學員募集廣告,” 『皇城新聞』, 1906. 10. 12. 박형우, 『금과 홍석후: 한국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개척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66에서 재인용.

21) 서울YMCA, 『사진으로 보는 서울YMCA 운동 100년』, 38.

22) 독립운동가 임병직(林炳稷), 이원순(李元淳), 송계백(宋繼白), 안재홍(安在鴻), 음악가 홍난파(洪蘭坡), 이영세(李永世), 체육인 김홍식(金弘植), 사진작가 민충식(閔忠植), 언론인 이관구(李寬求), 정치가 정구영(鄭求漢), 화가 이상범(李象範) 등이 있다. 전택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204-208.

23) “특별대복음회,” 『황성신문』, 1909. 4. 11.

24) 박형우, 『금과 홍석후: 한국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개척자』, 67-68.

25) “종로 네거리 고색창연한 거대한 건물, 그것은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이다. 그 아래 층 양복점, 양화점, 서점, 약점, 이발소 등의 쇼윈도가 짙 늘어있는 중 건물과 제일 대조성 있게 되어있는 여성적인 데코레이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면 홍군의 진찰소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醫師評判記(1),” 『동광』(1931), 66-69.

형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학관에서 이루어진 음악교육활동 외에도 기독교청년회관은 음악문화에도 기여하였다. 회관은 음악가들의 연습실이나 사무실로 이용됐고, 악기제조소와 악기사 등이 있었으며, 기독교청년회 내의 자체적인 음악과 모임이나 음악활동의 무대가 되었다. 1922년경 기독교청년회 소년부에는 관현악단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²⁶⁾ 경성악대와 중앙악우회 등 관현악단체들의 연습실 혹은 서울악우회 같은 음악단체의 사무실이 있었으며,²⁷⁾ 중국과 일본의 악기제조공장에서 악기제조 실무를 쌓고 돌아온 악기제작자인 강병필(康秉弼)의 악기제조소가 위치해 있어서 조선악기와 피아노, 풍금 등 각종 악기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기도 했다.²⁸⁾ 1930년대에는 각종 축음기와 레코드, 악기를 판매하는 경성악기상회가 1층에 자리를 잡았다.²⁹⁾ 1920년대 기독교청년회에서는 일반인을 상대로 월 2원의 수업료로 피아노, 풍금,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음악과를 신설하여 박경호(朴慶浩, 1898-1979)가 지도를 하였으며,³⁰⁾ 음악구락부를 만들어 채동선(蔡東鮮, 1901-1953)이 사무를 보기도 했다.³¹⁾ 또 회관 안에 있던 기존의 음악연구소를 “대확장시켜 장래의 음악학교를 목표”로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음악이론, 교육학, 아악 등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³²⁾ 또한 여러 교파가 연합으로 세운 조선예수교연합대학(CCC, Chosun Christian College)이라 불리던 연희전문학교도 기독교청년회관 3층에서 수업을 시작하여 1919년 신촌 신축교사로 이전할

26) “소년부 주최의 신춘음악대회,” 『매일신보』, 1922. 2. 2.

27) “경성악대를 위하여,” 『매일신보』, 1921. 6. 4., 줄고, “식민지조선 음악단체 중앙악우회(中央樂友會) 정체성 연구,” 『음악과 문화』 35 (2016), 90-92.

28) “조선악기 제조소 출현,” 『동아일보』, 1925. 2. 18.

29) “광고,” 『靑色紙』 (1938. 6), 15.

30) “음악과 신설, 중앙청년회서,” 『동아일보』, 1926. 1. 6.

31) “樂壇異聞,” 『예술』 (1935. 7), 128.

32) 강사는 현제명, 채동선, 이승학, 홍지유, 문학준, 최성두, 구자옥이다. “종로기독교청년회 음악연구소 대확장!,” 『음악』 (1937. 5), 2-3.

때까지 이 건물을 사용하였는데, 그 당시 김영환(金永煥, 1893-1978)의 지도 아래 음악부 학생들이 활동하였다.

1910년대 중반에 걸쳐 기독교청년회관은 증축이 된다.³³⁾ 확장된 기독교 청년회관은 경성의 랜드마크로서 종로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인 중심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공간이 되었다. 아래에 인용된 이태준(李泰俊, 1904-?)의 소설에서 청년회관 소속 야학교 고등과 학생의 시선을 통한 1920년대 기독교청년회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청년회관은 야학뿐이 아니었다. 서울서는 제일 큰 대강당이 있어 거의 저녁마다 유명한 어른들의 강연회가 있었다. 송빈이는 강연회가 있는 저녁은 공부에만 착념할 수가 없었다. 대강당에서 우뢰 같은 박수소리가 울려올 때마다 곧 그리고 뛰어가고 싶었다.³⁴⁾

전차의 길목인 기독교청년회관 앞은 매일 밤 각종 공연과 강연 등을 보고 쏟아져 나오는 조선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경성의 조선인 문화 중심지로 입지를 굳혀 가게 되었다.³⁵⁾

33)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의 검색결과(2016. 12. 27.) 황성기독교청년회관이 1916년에 증축되었다고 나오지만 『서울YMCA운동 100년사』 158에는 “회관 증축은 소년부와 체육부 및 실업부 활동으로 확장이 불가피하여 1910년부터 벌써 모금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밝힌다. (중략) 그래서 1914년 봄에 실업부 건물이 완공되고 가을에는 체육관 증축이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으로 보는 서울YMCA 운동 100년』의 <서울YMCA 운동사 연보>에는 1914년 실업부 건물 완공, 체육관과 공업관 증축, 1915년 산업부 확장, 1916년 실내체육관 개관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자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회관 확장을 보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1910년대 중반에 걸쳐 전반적인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겠다.

34) 이태준, 『사상의 월야』 (소명출판, 2015), 132-133.

35) 청년회관 - 종로경찰서하고 나란히 서 있는 저 군함같이 큰 양옥집이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일세.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미국 사람이 8만 원 기부한 돈에 조선서 모은 돈을 보태어 30만 원 들여 지어 가지고 이 안에 주·야학 학관이 있고 사진, 인쇄, 목공까지 따로따로 전문으로 배우는 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한 5-6백 명 수

3. 기독교청년회관 음악회

기독교청년회관은 1907년 그 안에 설립된 상동청년학원 중학부에 김인식을 음악선생으로 고용해 음악을 지도하도록 했는데,³⁶⁾ 이 청년학원에서 주최한 1911년의 음악회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행해진 초창기 음악회 중의 하나가 된다.³⁷⁾ 이후 김인식이 김형준(金亨俊, 1885-?), 홍난파 등을 멤버로 만든 경성찬양대(京城讚揚隊) 또한 1910년대 기독교청년회관이 음악회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일조한다.³⁸⁾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큼 큰 강당이 없었던 경성에서 1910년대의 기독교청년회관은 1920년대에 천도교당과 경성공회당이 생길 때까지 간간히 열리던 대부분의 음악회를 수용했고, 일본인 음악가의 공연도 열었다.³⁹⁾ 1920년대에 이르러 음악회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고 증가하면서 기독교청년회관은 경성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회장이 되었다.

기독교청년회관의 음악회를 정리한 (부록)⁴⁰⁾을 보면, 음악회와 관련된 당시의 음악환경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 음악회가 조선인의 일

용하는 강당이 있어서 천도교 신교당이나 또 그 기념관이 생기기까지는 경성 민간의 유일한 공회당이였었다네. 일기자, “이일동안에 서울구경 골고로 하는 법,” 『별건곤』 (1929. 9), 62.

36) “우리문화<16> 음요 양요의 개척자,” 『경향신문』, 1973. 1. 6.

37) “청년학원 연주회성황,” 『매일신보』, 1911. 3. 16.

38) “청년회의 강탄(降誕)제 축하 대음악회,” 『매일신보』, 1914. 12. 24., “경성찬양대음악회,” 『매일신보』, 1915. 8. 28., “경축대음악회,” 『매일신보』, 1915. 12. 23. 외

39) 피아니스트 오오쿠라(小倉末子)의 음악회(“영예받는 음악가 소창양,” 『매일신보』, 1916. 11. 30., “소창양의 연주,” 『매일신보』, 1916. 12.13., “악단의 명성,” 『매일신보』, 1916. 12. 16. 외)나 이와자키 히로시와 오오바 유노스케의 바이올린 연주가 그런 경우이다.(“자선음악회,” 『매일신보』, 1916. 10. 29., “청년회의 대음악회,” 『매일신보』, 1917. 8. 8. 외.) 특히 일본인 음악가의 공연이 이곳에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1910년대까지의 음악회가 아직까지 누구나 찾아오는 공공음악회의 기능보다 개별 모임이나 기독교중심의 음악회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40) <부록>은 논문 뒷부분에 첨부하였다.

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부터 1935년까지 16년간 기독교청년회관에서는 총 196차례의 음악회가 열린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1)을 통해 연도별 개최 횟수를 살펴보면, 1920년대에 음악회가 자주 개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21년 경성공회당과 천도교당이 자리잡으면서 약간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음악회 개최 횟수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음악회가 차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1930년대에 이르러선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 기독교청년회관의 연도별 음악회 개최 횟수⁴¹⁾ (연도 기준: 1900년대)

年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數	20	14	15	19	25	25	23	14	15	10	4	2	5	4	0	1

(부록)에 따르면, 기독교청년회관의 음악회는 대체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음악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회와 강연회나 모임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열리는 음악회로 나눌 수 있다. 그 기준은 독주회, 독창회, 연주회라고 명시하여 그 제목에서 음악회의 내용을 알 수 있기도 했고, 명시된 주최나 출연진들의 자료에서도 음악회의 목적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음악무도대회, 음악강연회, 음악간찬회, 문예강연회, 기념음악회 등의 이름으로 된 공연은 순수하게 심미적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모금

41) 이 논문에 나오는 모든 음악회의 수치와 목록은 연구자가 파악한 음악회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밝힌다. 음악회는 음악회라는 이름을 달고 개최된 양악 중심 음악회만을 기준으로, 대중음악 혹은 조선음악이나 일본음악만 다루는 음악회는 제외하였으며, 연구자의 판단에 의하여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거나 음악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기념회, 강습회, 강연회 등은 음악공연이 포함되어 있어도 제외하였다.

을 위하여 구제음악회, 위안음악회 등의 이름으로 된 공연 또한 그러했다. 음악회라는 명칭을 갖고 개최되었던 이러한 다양한 모임 등은 음악이 당시 조선인들의 일상과 점층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음악회는 보통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시작되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끝났다. 전차는 보통 새벽 5시부터 자정이 넘은 0시 30까지 운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늦게 음악회가 끝나도 교통편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저녁 음악회 문화를 조성할 여건이 되어 있었다.⁴²⁾ 입장료는 1원에서 2원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의 음악회에서 학생 할인을 해 주었다. 1920년 6월 9일에 열린 경성악대 원찬음악대회 광고를 보면, 학교 정모(正帽)를 쓰고 오거나 트레머리를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학생권을 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생 할인의 기준을 추측할 수 있다. 음악회 공지를 하였어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취소, 연기, 금지, 중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전기 공급이 안 되거나, 비가 많이 내리거나, 연주자의 교통편에 문제가 생기거나, 총독부의 허가를 얻지 못하는 등 당시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듯 다양하게 나타난다.⁴³⁾ 당시 언론 매체에 실린 기사를 보면, 초기 음악회는 전문 음악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출연하는 ‘학예 발표회’ 수준의 음악회가 주를 이루었고 후반으로 갈수록 함께 공연하는 경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문음악가가 출연하는 음악회는 조선인 음악가, 재조외국인, 해외 연주가, 음악단체, 학생단체들로 다양한 그룹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경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전문 음악훈련을 받은 음악가들이 여러 음악회에 번갈아가며 출연했는데, 양악 음악가로는 홍난파, 최호영, 박경호, 안병소, 안기영, 고봉경, 김영환, 백명곤, 한기주, 윤심덕, 이인선, 독고선,

42)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경성의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1999), 106.

43) 광정선(郭正善)의 첼로 공연은 “비로 말미암아 악기를 나를 수가 없어 출연을 중지”하였다. 일기자, “별나라 7주년기념 「동요·음악·동극의 밤」은 이렇게 열었다,” 『별나라』 (1933. 8), 41., “수해구제음악회,” 『동아일보』, 1925. 7. 21.

김재호, 임배세, 박태원, 김원복, 김형준, 윤기성, 계정식, 홍재유 등이 있었다. 전통음악가인 이동백, 김계선, 고익상, 박춘제 등이 서양식 음악회에 양악 전문가들과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출연진은 대부분 선교사나 선교사의 가족인 경우가 많았는데 단독으로 공연을 하기 보다는 조선인 음악가들 공연에 찬조로 출연하거나 합동공연을 하는 형식이었다. 냉동(冷洞) 신학교 교장 빌링스 박사를 비롯하여 꼴문, 롯스, 부스, 콕, 빼커, 아펜젤라, 후스, 스투데니 등의 이름이 홍보물에 자주 올라왔다. 해외연주자로 유겸자(柳兼子, 야나기 가네코, 1892-1984), 흑인성악단, 일본하모니카음악단 등이 내한하여 공연을 하였다. 연주단체로는 경성악대, 중앙악우회, 연악회, 코리아재즈밴드 등이 있었고 학생단체로는 이전합창단, 보전현악대, 배재악대, 근화코스, 조선정악전습소, 해삼위학생음악단, 동경음악학교 음악단, 하와이학생음악단, 동지사(同志社)대학 여자합창대 등이 출연하였다.

주최로는 조선음악협회, 조선가요협회, 경성악대, 연악회 등의 음악단체나 조선학생회, 서울청년회, 근우회, 의화소년회 등의 학생 및 청년들의 사회계몽단체, 안국동교회 내 시온회, 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협회, 예수교연합회, 엠플(Epworth)청년회 등 기독교관련 단체들이 많았다.

눈에 띄는 점은 베토벤 탄생 기념음악회나 레코드 음악회, 작곡 감상회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음악 공연이 발견된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중심의 음악회는 전문음악인 중심의 음악회라기보다는 아마추어 발표회 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순수하게 음악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다른 효과들을 기대하는 공연이 위주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즉, 조선인 중심의 음악회는 심미적 기능보다 사회적 기능이 더 컸다고 판단되는데, 음악평론가 김관(金管, 생몰년 미상)도 음악회가 “사회의 좋은 오락용구로서 어리광 노릇을 하”⁴⁴⁾는 도시경험의 목적이 앞섰다고 평가하였다.

44) 김관, “음악비평과 연주자,” 『조선문단』 (1935. 5), 138.

4. 조선인 중심 음악회의 특징

조선인을 위주로 개최되었던 기독교청년회관 음악회는 당시의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상황 안에서 ‘근대화’와 ‘식민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다. 첫째, 조선인에게 음악회는 근대적인 도시경험의 하나였다. 이를 밝혀보고자, 실내공간에서 음악회라는 이문화(異文化)를 접하는 청중과 신문화의 선구자로서 음악회 문화를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음악가의 모습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둘째,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선인 중심의 음악회는 식민자의 통제를 위한 민족공간이자 일본식 서구문화를 식민지에 뿌리내리는 공간으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주최자의 입장에서 음악회의 기능을 파악할 것이며, 음악회를 이용한 문화적 식민주의 역시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1) 근대적 도시경험

식민지경성의 조선인들은 주로 소설이나 잡지를 읽고, 극장이나 음악회를 다니며, 백화점을 구경하고, 공원이나 동·식물원으로 산책을 다니며 근대 도시경험을 했다. 그 중 음악회는 고가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했기에 주로 중상류층의 문화생활이었다. 급격한 변화로 인해 도시빈민이 산재한 경성의 서구식 음악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음악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매개체 중 하나였으며, 음악을 소비하는 대중들은 음악회를 다님으로써,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1943-)의 주장처럼 “새로운 권력의 일부가” 되어 음악회를 통해 자신의 계급과 지위를 확인하였다.⁴⁵⁾ 당시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기 원했던 경성의 대중들은 앞 다투어 음악회에 참석하였고, 엘리트, 교양인, 지식인, 문화인

45) 차지원, “음악, 권력, 돈: 자크 아탈리의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 읽기,” 『음악사연구』 2 (2013), 158.

이라는 칭호에 우월감까지 선사받았다. 그러면서 음악회에 가지 못하는 대중들과도 구별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음악회에 다니는 조선인 중에 정작 서양음악을 이해하고 수월하게 감상할 수 있는 대중이 얼마나 되었을까? 초기의 음악회 풍경을 담고 있는 홍난파의 글에서는 음악회 레퍼토리나 악기류를 통해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장기자랑 같은 초기 근대 음악회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아래 인용된 글은 서양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⁴⁶⁾

그때(1915년에서 1920년경-인용자)의 음악회란 음악전문가들의 예술적 연주회나 연구발표회가 아니라 서양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어릿광대들의 소기(素技)에 지나지 못했던 것이니 그러므로 해서 그 당시의 프로그램을 회상해 본다면 찬송가 독창이나 유행소곡과 아울러 하모니카 독주나 명적(明笛), 만돌린 심지어 이삼십전의 완구악기인 감자(甘蔗, 사탕수수-인용자) 등 까지가 당당히 등단했다.⁴⁷⁾

레파토리는 찬송가나 유행가가 주류를 이루었고,⁴⁸⁾ 악기는 위에 언급된 종류 외에 톱 연주도 자주 등장했다.⁴⁹⁾ 초기의 음악가는 “음악을 전문공구

46) 이러한 풍경은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이태준의 소설 속에 초기 근대 음악회가 묘사되었다. “성악이나 기악이나 제법 전문한 사람은 별로 없었고, 예배당 찬양대원들이 중견악사들로 독창에, 합창에, 피아노에, 풍금에, 바이올린은 물론 코넷, 플룻, 하모니카, 요꼬후에(橫笛, 대금과 비슷한 일본악기-인용자)까지 등장하였다. 곡조는 모두 단순한 것들로 순서는 삼십 가지가 으레 넘었다.”(이태준, 『사상의 월야』, 172.)

47) 홍난파, “조선문화 이십년(27) 형태의 정비와 지반의 확고 - 음악편(1),” 『동아일보』, 1940. 5. 19.

48) 1920년대가 될 때까지도 예배당이든 술집이나 기생집이든 찬송가가 유행하였다. “現下 樂壇을 돌아보면서,” 『개벽』 (1926. 1), 74.

49) 안대선이나 황재경이 톱 연주를 자주 하였다. 톱을 그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악기

(專門功究)하는 인(人)은 아니요, 혼이는 부업으로써 다소간 이 방면에 소양과 취미를 남보다 더 가졌”⁵⁰⁾던 사람들이었고, 음악을 생업으로 하는 음악가들도 자신의 전공분야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보였다. 예를 들면, 김형준은 작사·작곡, 성악, 나팔까지 섭렵했으며,⁵¹⁾ 김영환은 피아노, 바이올린, 작곡을 겸했다.⁵²⁾ 이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온갖 장기를 선보이며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었다.⁵³⁾

근대 유행물인 음악회는 사회적 사교의 장으로도 이용되었다. 현진건(玄鎭健, 1900-1943)의 소설 『까막잡기』(1924)를 보면, 전문학교에 다니는 상춘이 학수에게 여학교 주최로 열리는 청년회관 춘기 대음악회에 가기를 권한다. 음악을 모르니 가지 않겠다는 학수에게 상춘은 하이칼라 여학생은 다 올 것이니 여학생 구경이라도 가자며 일등표까지 사주고 데려간다.⁵⁴⁾ 이 소설 속 음악회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만나기 위한 매개체로 그려진다. 현진건의 다른 소설 『B사감과 러브레터』(1925)에서도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

연주라 할 수 없지만 당시는 톱 연주도 조선인 중심의 음악회에서 많이 공연되었다. (1926년 11월 27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음악대연주회 외)

- 50) 홍난파, “조선악계의 과거와 장래”, 『음악계』 (1925. 4)
- 51)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중앙대학교출판국, 1976), 127. 1915년 8월 30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김형준은 독창과 코넷 독주를 하였다. “경성찬양대 음악회,” 『매일신보』, 1915. 8. 28.
- 52) 일본 유학 후 첫 번째로 진학한 동양음악학교에서 피아노 수업을 받으며 바이올린을 배웠고, 두 번째로 진학한 우에노음악학교에서 피아노 외에 작곡을 습득하였다. “한국의 피아노음악과 그 인맥(1),” 『피아노음악』 (1987. 4), 50. 1915년 8월 30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음악회와 1921년 4월 23일 장대현은 예배당에서 있었던 음악회에서 김영환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독주를 하였다. “경성찬양대 음악회,” 『매일신보』, 1915. 8. 28., “장대현 음악대회,” 『동아일보』, 1921. 4. 27.
- 53) 박용구는 당시 음악가들 사이에 분업화가 되지 않아 연주자인 동시에 작곡가이기도 했다고 한다.(박용구 외, 『박용구: 한반도 르네상스의 기획자』 (슈류산방, 2011), 115. 그러나 연구자는 이것이 분업화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수였던 음악가들이 현실적으로 음악계를 끌어가기 위해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 54) 현진건, “까막잡기,” 『개벽』 (1924. 1)

의 편지가 오면, 사감은 “학교에서 주최한 음악회”에서 만났나며 문초를 한다.⁵⁵⁾ 이처럼 조선인들에게 음악회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공개적인 연애 장소로도 인식되었다.

거기(음악회장-인용자)에는 아낙네도 있고, 부인도 있고, 처녀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영양(令嬢)도 있고, 전문학생도 있고, 신사도 있고, 노동자(勞動者)도 있다. 어떤 안경 쓴 양복쟁이는 입구에서부터 활발(活潑)한 안구(眼球)의 운동을 개시(開始)하면서 부인석(婦人席)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자리를 찾을 때에 부인석 근처(近處)에는 도저(到底)히 앉을 만한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볼 것이다. 여기서 음악회에 가는 것은 음악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체험(體驗)할 것이다.⁵⁶⁾

또한, 연극이나 영화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반해 가무(歌舞)가 허용되었던 음악회는 청중도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놀거리가 없던 대중들에게 음악회는 남녀가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노는 여흥이자 쾌락, 오락 등으로도 인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이나 이원의 고가의 입장료를 선선히 내는 청중들”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일석(一夕)의 유희기분으로 이것에 만족”⁵⁷⁾하며 음악회를 다녔다.

그러나 음악가들은 점차 ‘조선식 유희’으로 변질되어 가는 음악회를 비판하며 청중들에게 음악회 예절을 주입시켰다. 음악가들의 우월한 자의식은 음악을 모르는 대중을 “음맹환자(音盲患者)”⁵⁸⁾ 혹은 “악맹(樂盲)”이라 칭하며, “음악문화의 ‘가가거겨’를 가르쳐”야 한다거나⁵⁹⁾ 음악회에서의 예의 없

55)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조선문단』 (1925. 2)

56) “음악회,” 『新民』 (1926. 9), 111.

57) 홍난파, “조선문화 이십년(27) 형태의 정비와 지반의 확고 - 음악편(1),” 『동아일보』, 1940. 5. 19.

58) 홍난파, “음악가로서 본 세인(世人)의 청각(聽覺),” 『동광』 (1931. 3), 45-46.

는 행동에 대해 “광태(狂態)”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며 강한 어조로 비꼬았다.⁶⁰⁾ 초기의 오락 기능을 하던 음악회는 점차 예의를 요구하며 ‘조용한 대중’을 원했다. 더 이상 음악회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대중의 소리를 차단함으로써 긴장감으로 가득 찬 경건한 장소로 탈바꿈 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서구화되고 격식 있는 근대문화로 변화했다.

음악가들은 ‘천대받는 광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어떠한 방법으로든 양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노력했다. 음악가들이 주도적으로 양악의 경계를 만들었는데, 그 중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양악의 지위를 고취시키는 일이었다. 서양음악이 생소하고 어색해서 어렵지만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고급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구도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들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저널리즘을 이용하여 양악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를 하거나⁶¹⁾ 유행가 혹은 조선음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무분별한 비판을 통해 양악의 우수성을 과시했다.⁶²⁾ 점차 서양음악에 대한 생소함 혹은 어색함

59) 박경호, “헌 조선악단제상에 대한 오인의 견해(1),” 『동아일보』, 1935. 4. 24.

60) 박경호, “음악회에서 광태를 짓는 형제들에게(1)-(2),” 『동아일보』, 1928. 3. 7., 1928. 3. 8.

61) 음악가들은 하이든(Franz Joseph Haydn, 1732-1809)이나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같은 유명 작곡가들의 생애와 글을 자주 실어 그들의 우수성을 찬미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양음악이라는 것은 뒤숭숭하니 시끄러운 것”이라는 조선인들에게 서양음악을 듣는 법이나 서양음악 레코드를 고르는 법 혹은 해외 여행이나 유학생활기 등을 반복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조선인들에게 서양과 서양음악에 대한 가치를 인식시키고 환상을 심어주었다. 鄭恩榮, “서양음악 듣는 법,” 『학생』 (1930. 9), 44., 홍난파, “악성 베토벤,” 『동아일보』, 1924. 12. 15., 이낙춘, “세계음악명곡해설,” 『별건곤』 (1926. 11), 66-73., 최상현, “근대구주의 천재예술가들,” 『청년』 (1931. 3), 150-152., 一翰, “하이든의 일생과 그의 예술,” 『음악』 (1934. 7), 21-24., 박경호, “모차르트의 생애와 예술,” 『조광』 (1938. 1), 186-194.

62) 초기에 유행가를 취입하거나 유행가 반주를 하며 음악회에서 일하던 음악가들조차 유행가는 나쁜 노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바빴다. 유행가는 “아비하고 속악한 음악”이라며 몸에 나쁜 “사카린”이나 “떠들썩한 잡소리”의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반면, 서양음악은 “깊고 고상한 음악”이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현제명, “音樂

은 어렵다는 인식을 넘어 고급스럽다는 인식이 굳혀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하다는 차별화를 성공시켰다. 서양음악을 상류층의 상징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독특한 행동을 부각시키거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단순한 풍속과 견주어 자신들의 우월한 풍속을 강조”⁶³⁾하기도 했던 음악가들은 서구의 문화만을 교양있고 세련되고 개화된 문명의 표상으로 여기며, 우리 민족의 문화적 특성이나 전통적 관습, 기질, 의식 등은 배제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 없이 개척되었던 초기의 “잡종 혹은 종합 음악회”⁶⁴⁾들은 유행과 음악가들과 전문음악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음악가 중심의 예술적 음악회로 점차 탈바꿈되었다. 그러나 그사이 대중은 라디오와 레코드의 보급으로 인해 음악가들보다 빠르게 고급화된 음악을 향유하게 되었다. (표 1)을 살펴보면, 조선인 중심지 종로에서 열린 음악회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라디오와 레코드의 손쉬운 청취로 인해 “일반 애호가들의 귀는 외래의 음악가의 연주회와 레코드로 말미암아 진보되”⁶⁵⁾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싼 값으로 반복 청취 할 수 있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또한 음악가들이 음악회의 예절에 대해 비판을 하자 대중들도 음악가들의 향상되지 않은 실력과 안하무인격의 뻔뻔함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음악회는 음악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모든 유행은 시기가 있듯이 음악회의 유행도 이렇게 막을 내렸다.

家로서의 關心, 『신가정』 (1933. 2), 83., 김관, “우리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좋은가, 『별나라』 (1931. 4), 22., “사상가, 문예가의 음악관, 『음악평론』 (1939. 4), 5., “春香歌로 오페라 만들면 春姬, 칼멘보다 낮게 된다, 『삼천리』 (1932. 4), 75.

63)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박미애 옮김, 『문명화과정 I』 (한길사, 2006), 154.

64) 홍난파, “조선문화 이십년(29) 형태의 정비와 지반의 확고 - 음악편(3), 『동아일보』, 1940. 5. 23.

65) “조선악단인의 실력문제·방송문제, 『음악』 (1936. 7), 1.

2) 식민지권력

조선총독부는 피식민자들의 시선을 장악할 문화행사를 열어주어 조선인들이 정치적 상황과 거리를 두게 하였다. 전람회, 박람회, 운동회 등의 대규모 구경거리는 “집단적인 의식과 유행을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식민대중을 새로운 세계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은 식민지배자들이 가장 즐겨 쓰던 방법”이자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자본주의 방법이기도 했다.⁶⁶⁾

3·1운동 이후, 일제는 식민지조선에 대한 통치전략을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변경하였다. 조선의 대중을 ‘길들이기’ 위해 수정된 일제의 이러한 계획은 문화를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식민화하려는 새로운 전략이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음악회의 횟수는 식민지 정책이 문화정치로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있어서, 음악을 통한 그들의 정치적 통제를 감지할 수 있다. 자크 아탈리의 주장대로 음악이 소음을 침묵시키는데 기여한다면,⁶⁷⁾ 식민지조선에서 음악은 피식민지의 권력이나 정치 등 여러 의미의 소음을 제어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권력은 소음을 여과시키는 매개체이자 “새로운 권력행사장”⁶⁸⁾으로 음악회를 이용한 셈이다.

아도르노(Theodor Wiesengrund Adorno, 1903-1969)나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 1895-1973)처럼, 대중문화를 무의식적인 “순응”으로 볼 때, 대중은 “자동으로 반응하고” “권위적으로 종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음악회에 모인 대중에게 음악회는 “지배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의식을 묶어두는 수단”으로, “정치적 상상력을 무력화”한다. 즉 음악회를 통해 대중의 규제가 가능하고 나아가 탈정치화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다.⁶⁹⁾

66)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154.

67) 차지원, “음악, 권력, 돈: 자크 아탈리의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 읽기,” 154-156.

68) 차지원, “음악, 권력, 돈: 자크 아탈리의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 읽기,” 157.

69) 존 스토리 / 유영민 옮김,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1), 53-54.

음악회장은 ‘대중의 집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대중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었다. 음악회장은 대중을 몰아넣을 수 있는 공간이자 일본정부가 손쉽게 대중을 규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곳이었다. 검은 옷의 일본인 경찰이 항상 칼을 지니고 강경한 자세로 대중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암묵적이거나 식민자로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조선인을 피식민자로 낙인시켰다.⁷⁰⁾

“음악회 같은 대서 ‘독창’을 한다하면 ‘이는 필시 독립만세창’함이라 하여 금하며”⁷¹⁾ 종로경찰서에도 “조선말을 잘하는 자가 있어서 강연회 때면 이 자가 꼭 임석(臨席)을” 했고, 조금이라도 연사의 말투가 이상하면 미리 중단시켰다. 신문 검열도 마찬가지였다.⁷²⁾ 음악회, 강연장, 활동사진관마다 “입구와 관객석에 경찰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무대 위 변사 옆에 걸상을 놓고” 관객을 내려다보며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다.⁷³⁾ 이처럼 경찰의 강력한 통치와 지나친 간섭은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었다. 특히 식민자에게 있어서 조선인의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은 애국심 고양에 매우 효과적이어서⁷⁴⁾ 더욱 문제가 되었다.

근대 도시에서 음악, 즉 소리는 “기호체계로 기능”하며 친숙한 음악이나 노랫소리는 “공동체 의식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⁷⁵⁾ 조선인들은 일본의 감시를 받고 감상하는 음악회일지라도, 우리말을 사용하고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우리 민족끼리 모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뚜렷하게 일본인과의 민족적 분리가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

70) 유선영, “극장구경과 활동사진 보기: 충격의 근대 그리고 즐거움의 훈육,” 『역사비평』 64 (2003), 370-371.

71) “신경과민의 간도경찰,” 『동아일보』, 1922. 8. 2.

72)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257.

73) 이순진, 『단성사』 (한국영상자료원, 2011), 34.

74) 파나 이사악꼬브나 샤브쉬나 / 김명호 옮김, 『식민지 조선에서』 (한울, 1996), 121.

75) 마크 스미스, 김상훈 역, 『감각의 역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89.

음악회는 많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했고, 그렇게 모인 대중들은 신분이나 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이고 평등해 지는 기분을 갖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회는 “시각이 동일한 인상을 갖게 할 수는 없지만 청각은 동일한 인상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짐멜의 주장⁷⁶⁾처럼, 음악회의 청중들을 미술관/박물관 관람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친밀한 통일체와 분위기의 공통체로 결합”시켰다.⁷⁷⁾ 사실상 경성의 조선인 중심 음악회에서 순수 음악 감상을 목적으로 음악회가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식민지기 조선의 음악회는 대개 민중의 화합과 근대의 경험을 위한 이벤트 성향이 컸다. 조선인들만 모인 조선인의 공간에서 민족 집단의 힘을 느끼고 조선 사회를 재현하는 느낌을 받으며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 역으로 일본은 음악회를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조선인들은 음악회를 찾아 다함께 노래를 불렀다. 노래가 일종의 소통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인들에게 함께 창가(唱歌)를 부르는 것은 음악행위라기 보다는 “주먹을 부르쥐고 떠드는 일종의 애국심”의 표출이었다. 애국계몽단체인 서북학회에서 ‘함께 노래부르기’의 힘을 인지하고 “그 시절의 음악전문학교”라 할 수 있는 제일음악강습소를 만든 것을 보면, 지식인들이 노래와 노래가 가진 텍스트의 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⁸⁾ 문맹자가 많고 힘이 없던 조선의 군중들도 노래 부르는 것에 참여함으로써 소극적이거나 일제의 지배에 저항했다. 일상에서의 이러한 저항이 큰 동요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조선인들 사이에서 음악은 “수동적 저항”의 매개체로 역할을 하였다.⁷⁹⁾ 조선인의 음악회가 “소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했는데,⁸⁰⁾ 일본 역시 이러한

76) 게오르그 짐멜 / 김덕영 외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167-168.

77) 게오르그 짐멜 / 김덕영 외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167-168.

78) “조선신음악개척사(開拓史),” 『신가정』 (1934. 12), 15-16.

79) 힐디 강 / 정선태 외 옮김, 『검은 우산 아래에서』 (산치럼, 2011), 189.

80) “음악회는 불허(不許),” 『동아일보』, 1921. 7. 19., “음악회도 무리 금지,” 『동아일보』,

음악회의 저항적 기능과 힘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간은 민족적 결집이 가능한 동시에 저항의 잠재력도 내재⁸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는 기독교청년회관, 천도교당, 탑골공원을 비롯하여 “조선에 있어서 청년남녀의 공동 집회로는 (이) 예배당”⁸²⁾ 등이 있는 종로 한복판에 종로경찰서를 세웠다. “문화정치 이래로 종로서(署)는 너무 번창하여” 여러 번 이전과 확장을 반복하며 종로의 조선인들을 통제하고 감시하였다.⁸³⁾

3) 상업주의

많은 일반인들이 음악회를 향유하게 됐지만, 대중들의 입장에서 쌀 한가마니와 맞먹는⁸⁴⁾ 고가의 입장료를 내고 음악회를 가는 것에 대해 부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에게 미지의 세계인 서구화에 대한 판타지가 너무 거대하다 보니 서구화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공포가 잠재되어 있어 너도나도 음악회를 다녔다. 음악회에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 음악회에 다니지 못하는 가정부인들은 “가난뱅이도 음악의 상식을 얻을 수” 있고 “어린아이 안고 갈 수 있는 값 헐한 음악회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음악회는 누구에게나 로망이었다.⁸⁵⁾

음악회를 기획하는 주최자들은 이러한 유행을 이용해 대중을 음악회로 유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유대관계, 즉 학연을

1924. 3. 5., “다수인 재차 검속은,” 『동아일보』, 1924. 7. 17.

81) 김태현, 『일본어잡지로 보는 식민지 영화 1』 (문, 2012), 100.

82) YYY, “聖書안들고 禮拜堂巡禮,” 『별건곤』 (1926. 12), 34.

83) “鐘路署 大々擴張移轉,” 『조선일보』, 1929. 8. 25., 신명직, 『모던뽀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253-255에서 재인용.

84) 1920년대 중반 쌀 한가마니는 4-5원 정도였고, 유명 음악가의 음악회 입장료는 3원 정도였다. 이홍렬, “나의 음악생활기,” 『淑音』, 129.

85) “가정부인으로서 음악가에게 보내는 말씀,” 『신가정』 (1934. 12), 41-42.

자주 이용하였다. 각종 음악회는 동창회, 교우회 등의 주최와 후원으로 가득 찼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회라는 조직에 들어와야 하는 개인이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악회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음악회를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주최자들이 문제로 대두됐다. “무슨 회나 무슨 단체를 막론하고 돈 생각이 나면 언필칭 음악회, 음악회하고 짓줄라 대”면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⁸⁶⁾ 학교 음악회 역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어 “학생 한 명당 입장권을 할당하여 한 장에 1원에 사게 하고, 떠맡은 학생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울상이 된 얼굴로 부탁해서 입장권을 팔고” 다닐 정도였다.⁸⁷⁾

또한 주최자들은 음악회를 ‘유행물’처럼 우후죽순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한 잡지는 “다달이 여는 그 음악회를 가보면 어떠한 음악회이던지 어떠한 주최를 물론하고 천편일률로 그것이 그것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구성되어, 음악회라는 “미명(美名)을 빌어서 일시의 호기심으로 돈냥이나 모아서 목전(目前)의 소리(小利)를 보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⁸⁸⁾ 매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음악회를 만들어 이득만을 취하는 주최자들은, 많은 관객들을 모으기 위하여 출연하지도 않는 인기 음악가들의 이름을 프로그램에 적고 홍보하여 그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홍난파는 우연히 기독교청년회관에 갔다가 그날 있던 음악회 프로그램에 자신의 이름과 곡명이 쓰여 있어서 경악을 했다고 불쾌함을 표했다.⁸⁹⁾ 박경호도 과장된 음악회 광고문을 지적하며 광고마다 “경성 유일 악가의 총출연”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쓰여 있는데 당일에 음악회장에 가보면 공연 순서

86) 홍난파, “유모레스크,” 『조선일보』, 1931. 2. 22.

87) 靑澤窅路, “朝鮮音樂會の人々”, 『朝鮮公論』 (1922. 11), 양지영, 『식민지 조선의 음악계』, (역락, 2015), 44.

88) 효종(曉鍾), “예술계(藝術界)의 회고(回顧) 일년 간(一年間),” 『개벽』 (1921. 12), 112-113.

89) 홍난파, “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제씨에게,” 『동아일보』, 1924. 7. 7.

가 스물세가지나 되고 그마저도 프로그램에 곡명이 쓰여 있는 것은 5개뿐이며 그중 4개는 오역오자(誤譯誤字)이고 순서를 바꾼다는 광고가 연방 나오는 안타까운 공연 형태를 지적하였다.⁹⁰⁾ 또한 만곡음악회는 마치 인종전람회 같고, 출연자가 16명인 4부 합창은 마치 16부 합창 같으며⁹¹⁾ 음악회라 위명(僞名)하고 난취난무(爛醉亂舞)한 러시아식 무도의 순서가 과반이거나 전문음악가를 불러 창가나 속가(俗歌)를 요청하기도 하여 음악회가 온습회인지 전람회인지 수라장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탄하였다.⁹²⁾

기획뿐만 아니라 출연자의 태도도 비판을 받았다. 정월(晶月) 나혜석은 윤심덕(尹心愆, 1897-1926), 김영환, 흥난파 등 당시 경성의 일류음악가들의 음악회를 보고 “입장료를 벌기 위함인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초대석에 만원(滿員)을 보면 거저 들어간 사람이 태반이나 되어 보니 빛이나 아니 지는지 부질없이 걱정이 되었다”⁹³⁾고 적은 후, 음악가들이 자신의 연주력 향상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박경호도 “일시적 허영이나 명예욕에 끌려 어림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음악회에 출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는지 모르나 음악을 위하여는 죄인이 됨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무조건 음악회에 출연만 하지 말고 “꾸준히 실력을 양성하라고”⁹⁴⁾ 권고하였다.

이러한 실정은 이태준의 소설 속에서도 여과 없이 묘사되었다. 전문음악인의 부재와 수십 개에 달하는 연주 순서, 단순한 수준의 레퍼토리로 가득 찬 일상화된 경성의 음악회가 드러난다.

90) 박경호, “빈빈한 음악회에 대하여(1)-(2),” 『동아일보』, 1926. 12. 3., 1926. 12. 4.

91) 박경호, “빈빈한 음악회에 대하여(3)-(4),” 『동아일보』, 1926. 12. 5., 1926. 12. 6.

92) 흥난파, “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제씨에게,” 『동아일보』, 1924. 7. 7.

93) 정월, “일 년 만에 본 경성의 잠감,” 『개벽』 (1924. 7), 87.

94) 박경호, “빈빈한 음악회에 대하여(4),” 『동아일보』, 1926. 12. 6.

실로 음악회를 주최하는 사람도 손님에게 음악 들리기가 목적이 아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알 것이다. 창가가 아니면 유행잡가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교 찬송가 부시락이다. 바이올린, 만돌린 연주라 하지마는 곡명을 보면 늘 들어 귀에 못 박힌 곡들이다. 그러면 돈을 오십 전이나 팔십 전이나 일원이나 내고 무엇 하러 가는가? 또 무슨 염치로 음악회를 주최하는가? 묻는 이가 무릉도원식(武陵桃源式) 사람이다. 그런 재미없는 음악회에 그런 많은 돈을 내고도 회장은 만원(滿員)이다. 우스운 현상(現象)이다.⁹⁵⁾

음악회를 음악 자체로 즐기기보다 음악과 상관없는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음악회를 열다보니 음악회의 질은 떨어지고 음악도 유흥의 일종으로 여겨졌다. 즉 음악회가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는 모임이라는 고유의 명분이 아닌 그저 근대적 유행물로 치부되어 상업화하는 왜곡된 욕망으로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자, 음악가들은 주최자에게 불만을 토로하거나 당부하는 글을 썼다. 흥난파는 이러한 음악회가 많아진 것에 대한 이유를 첫째 돈이 적게 들고, 둘째 간편하고, 셋째 유행품이고, 넷째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따라한다고 평가하였고,⁹⁶⁾ 박경호는 주최자에게 반드시 음악종류 선택, 연주자 청빙, 입장권 발행, 순서배치 등을 음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연구하여 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⁹⁷⁾

5. 나가며

근대도시 경성 한복판에 건립된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은 조선인들의 중요한 활동공간이자 문화운동의 거점으로 다양한 근대 음악회가 개최되면서

95) “음악회,” 『新民』 (1926. 9), 111-112.

96) 흥난파, “악단의 뒤에서 음악회를 주최하는 제씨에게,” 『동아일보』, 1924. 7. 7.

97) 박경호, “빈빈한 음악회에 대하여(3),” 『동아일보』, 1926. 12. 5.

현재 우리 음악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1920년부터 1935년까지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음악회에 관해 인쇄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조선인들의 음악회 참여를 통해 근대 도시경험의 총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았다. 식민지 상태에서 음악회는 식민자들에게는 문화통치의 새로운 매개체로 기능했고 동시에 피식민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고 수동적 저항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었다. 한편, 근대적 유행물인 음악을 통해 근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욕구가 강하게 반영돼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연구자는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된 조선인을 위한 음악회를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진상을 확인하였다. 첫째, 음악회는 1920년대 초·중반에 빈번한 횡수로 개최되었으나, 1930년대에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레코드와 라디오의 보급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이 변화했다는 점과 반복되는 형태의 음악회 기획 수준에 실망하여 조선인들이 음악회를 외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음악회는 근대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기에 비싼 입장료를 지불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에게 서구 문화에 대한 환상과 호기심으로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음악회는 조선인들이 공적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음악과 무도를 즐기는 새로운 사교의 장(場) 역할도 담당했으며 근대적 도시인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행보였기에 더욱 인기가 있었다. 셋째, 음악회를 통해 조선인 대중과 유학과 연주자들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한 이문화에 대한 수용과 갈등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선인들은 초기의 서구식 음악회가 제공한 새로운 사회적 기능에는 신속하게 적응하면서도 서양음악 공연의 ‘엄격함’ 19세기식 청중 예절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까닭에 자문화의 전통음악을 향유하던 모습 그대로 놀이판이나 장터처럼 자유롭게 음악을 즐겼다. 조선인 연주자들 역시 조선인 대중들과 마찬가지로 장기자랑처럼 갖가지 공연을 펼치는 식의 음악회 구성을 갖고 조선인 대중들과 함께 어울렸으나, 점차 일본과 구미 유학과

음악가들이 증가하면서 서구식 음악회 관습이 강요되고 조선인들의 자유로운 행동 또한 비판받았다. 이렇듯 서양음악 수용 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는 궁극적으로 자국의 음악인 조선음악과 동일하게 인기를 유지했던 유행가의 위치를 사회적으로 하락을 시켰으며 역으로 서양음악과 서양음악을 위주로 기획된 음악회를 고급문화로 승격시켰다. 현재 우리 음악계의 잘못된 구도의 출발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조선의 서구식 음악회는 식민지하 문화정치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도입되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문화정치라는 새로운 통치방법을 시도하여 정치적 관심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음악회와 같은 문화행사를 열어 정치적 소음을 제어하였다. 총독부의 음악회에 대한 검열은 엄격했고, 그들의 통치와 감시는 취미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음악회장의 무대에서까지 이루어졌다. 다섯째, 음악회가 유행하자, 음악회 주최자들은 동창회, 교우회를 비롯하여 기념회, 강연회 등의 행사에도 음악회라는 이름을 걸고 개최할 정도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음악회를 만들어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음악회의 수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러 문제와 비판이 터져 나왔고 조선인들 사이에서 음악회의 유행은 점차 시들해져 갔다.

초창기 근대 음악회는 현실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식민지 조선인들이 음악회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려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음악회가 열렸던 공간에 관한 연구는 서구식 음악문화가 조선인들의 일상에 침투되어 변화되는 양상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음악문화의 일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초기 근대식 건물로써 다양한 음악회를 개최한 기독교청년회관뿐 아니라 다른 음악공간으로 확장하여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참고문헌

<1차자료>

『황성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향신문』, 『Korea Review』

- 김관. “우리들은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좋은가.” 『별나라』 (1931. 4)
_____. “음악비평과 연주자.” 『조선문단』 (1935. 5)
小春. “서울중심세력의 유동.” 『개벽』 (1924. 6)
박경호. “모차르트의 생애와 예술.” 『조광』 (1938. 1)
백관수. 『경성편람』. 홍문사, 1929.
유광렬. “종로네거리.” 『별건곤』 (1929. 9)
이낙춘. “세계음악명곡해설.” 『별건곤』 (1926. 11)
이흥렬. “나의 음악생활기.” 『淑音』 1968
일기자. “별나라 7주년기념 「동요·음악·동극의 밤」은 이렇게 열었다.” 『별나라』 (1933. 8)
일기자. “이일동안에 서울구경 골고로 하는 법.” 『별건곤』 (1929. 9)
一翰. “하이든의 일생과 그의 예술.” 『음악』 (1934. 7)
晶月. “一年 만에 본 京城의 雜感.” 『개벽』 (1924. 7)
鄭恩榮. “서양음악 듣는 법.” 『학생』 (1930. 9)
최상현. “근대구주의 천재예술가들.” 『청년』 (1931. 3)
현제명. “音樂家로서의 關心.” 『신가정』 (1933. 2)
현진건. “까막잡기.” 『개벽』 (1924. 1)
_____. “B사감과 러브레터”, 『조선문단』 (1925. 2)
홍난파. ‘洋樂朝鮮의 요람시대.’ 『조광』 (1939. 8)
_____. “음악가로서 본 세인(世人)의 청각(聽覺).” 『동광』 (1931. 3)
_____. ‘中央樂壇의 가을씨든’, 『동광』 1931. 1.
_____. “조선악계의 과거와 장래.” 『음악계』 (1925. 4)
효종(曉鍾), “예술계(藝術界)의 회고(回顧) 일년 간(一年間).” 『개벽』 (1921.

- YYY, “聖書안들고 禮拜堂巡禮.” 『별건곤』 (1926. 12)
 “가정부인으로서 음악가에게 보내는 말씀.” 『신가정』 (1934. 12)
 ‘경성의 大觀.’ 『별건곤』 (1929. 9)
 “사상가, 문예가의 음악관.” 『음악평론』 (1939. 4)
 “樂壇異聞.” 『예술』 (1935. 7)
 “음악회.” 『新民』 (1926. 9)
 “醫師評判記(1).” 『동광』 (1931)
 “조선신음악개척사(開拓史),” 『신가정』(1934. 12)
 “조선악단인의 실력문제·방송문제”, 『음악』(1936. 7)
 “중로기독교청년회 음악연구소 대확장!”, 『음악』(1937. 5)
 “春香歌로 오페라 만들면 春姬, 칼덴보다 낮게 된다”, 『삼천리』(1932. 4)
 “한국의 피아노음악과 그 인맥(1)”, 『피아노음악』(1987. 4)
 “現下 樂壇을 돌아보면서”, 『개벽』(1926. 1)

<2차 자료>

- 게오르그 짐멜 / 김덕영 외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김영근. “일제하 일상생활의 변화와 그 성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1999.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김태현. 『일본어잡지로 보는 식민지 영화』. 문, 2012.
 김순주. “식민지시대 도시생활의 한 양식으로서 ‘대극장’-1930년대 경성부 민관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56 (2014), 1-36.
 김희진. “한국의 근대 연주회장 연구: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 교, 2011.
 노르베르트 엘리아스 / 박미애 옮김. 『문명화과정 I』. 한길사, 1996.
 마크 스미스 / 김상훈 옮김. 『감각의 역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민경배. 『서울YMCA운동사』. 서울YMCA, 2004.
 박용구 외. 『박용구: 한반도 르네상스의 기획자』. 수류산방, 2011.
 박형우. 『금과 홍석후: 한국 안과와 이비인후과의 개척자』. 연세대학교 출

관부, 2008.

- 서울YMCA. 『사진으로 보는 서울YMCA 운동 100년』. 서울YMCA, 2004.
- 신명직.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 양지영. 『식민지 조선의 음악계』. 역락, 2015.
- 유선영. “극장구경과 활동사진 보기: 충격의 근대 그리고 즐거움의 훈육.” 『역사비평』 64 (2003), 362-376.
- 이순진. 『단성사』. 한국영상자료원, 2011.
-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중앙대학교출판국, 1976.
- 이태준. 『사상의 월야』. 소명출판, 2015.
- 장규식. 『서울, 공간으로 본 역사』. 혜안, 2004.
- 전택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종로서적, 1993.
-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조용만. 『경성야화』. 도서출판 창, 1992.
- 조운영. “음악, 근대 그리고 계몽: 백우용(白禹鏞, 1883-1930)은 누구인가.”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 _____. “식민지조선 음악단체 중앙악우회(中央樂友會) 정체성 연구.” 『음악과 문화』 35 (2016), 90-92.
- _____. “경성(京城)의 음악회(1920-1935): 식민지 일상과 근대의 경험, 그 다양한 시각에 대 하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8 미발행.
- 스토리, 줌 / 유영민 옮김. 『대중문화란 무엇인가』. 태학사, 2011.
- 차지원. “음악, 권력, 돈: 자크 아탈리의 『소음: 음악의 정치경제』 읽기.” 『음악사연구』 2 (2013), 153-170.
- 샤브쉬나, 파냐 이사악꼬브나 / 김명호 옮김. 『식민지 조선에서』. 한울, 1996.
- 테일러, 메리 린리 / 송영달 옮김. 『호박목걸이』. 책과함께, 2014.
- 황병주. “근대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식민지시대 문학 장의 동향: 식민지기 공적(公的) 공간(空間)의 등장과 공회당(公會堂).” 『대동문화연구』 69 (2010), 261-307.
- 황현 / 허경진 옮김. 『매천야록』. 한양출판, 1995.

힐디, 강 / 정선태 외 옮김. 『검은 우산 아래에서』. 산처럼, 2011.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3.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09.

YMCA. *J. S. Gale's letter to the International Committee*. New York: YMCA, 1905.

사진자료: 서울YMCA, 검색일: 2016. 12. 10., 2017. 1. 6.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 검색일: 2017. 1. 6.

[부록] 1920년부터 1935년까지 기독교청년회관 음악회 관련 자료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1920	2.27	7:30	음악회	정동예배당 웹릿청년회	이화학당, 조선음악계의 음악가들 2원, 1원, 50전
	4.10	7:30	자선음악연주회	상동예배당 웹릿청년회	경성악대, 그레그, 이화학당, 박태원, 아펜젤러, 이상준, 大場勇之助 등
	4.13	8	자선음악대연주회	어린벗사	2원, 1원, 50전
	4.14	7:30	인쇄공구제음악회	인쇄직공구제회	김영환, 유심희, 김후동, 심정순 2원, 1원, 50전
	4.20-21		활동사진, 음악회	청년회	활동사진과 음악회로 전차의 종사원을 위로
	5.4	7	유검자부인독창회	동아일보사	2원, 1원50전, 1원
	5.8	8	음악회	먼려청년회	김영환, 최동준, 유심희
	5.15	7	유검자부인독창회	폐허사	반주: 鳥秀代, 찬조: 김영환
	5.21	8	연전음악회	연전 청년회	박태원, 전낙선, 김기환. 2원-50전
	6.9	8	경성악대 원찬 음악대회	동아일보사	경성악대, 그로브, 김영희, 최동준, 유심희, 김재호, 岩崎寛 2원, 1원50전, 1원, 학생 50전
	6.12	8	주일학교 음악회	정동예배당	김재호, 임배세, 박태원, 최동준, 아펜셀러, 반버스크 등 다수
	6.26	8	음악회	학생대회	
	7.30	8	성악회	청년회	흑인 성악단, 경성악대, 김명순, 최동준. 2원, 1원, 50전
8.2	8	성악회	경성악대	흑인성악단, 경성악대, 김계선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8.5	8	성악회	경성악대	흑인성악단, 임배세, 박춘제 등 2원, 1원, 50전
	9.7	8	동서음악연주회	동경 문원사	경성악대, 박태원, 임배세, 김한용, 김영환
	9.25	8	자선음악연주회	청년회	김계선, 임배세, 이전합창단
	10.2	7	홍난파제금독주회	홍난파 후원회	홍난파 피아노 독주도 있음 2원, 1원, 50전
	10.4	8	추기 음악연주회	고학생 갈뎁회	경성양악대, 조선정악전습소, 김영환, 최동준, 이상준, 신양무, 박태원, 김형준, 임배세, 김원복 등 1원, 학생 50전
	12.4	7	동서음악대연주회	광익서관	학생 30전
1921	3.7	8	클락독창대음악회	서양인학교	무료 입장
	3.12	7:30	음악회	반도청년구락부	김영환, 김기선 등
	4.9	7:30	자선음악대회	중교웹윗청년회	50전, 30전
	4.29-30	8	해삼위학생음악단 음악회		2원, 1원, 50전
	5.2	8	해삼위학생음악단 음악회	학생대회	
	5.6	8:15	음악회	서양인구락부	빨닝스, 꼴문, 룯스 등
	6.4	8	해삼위학생음악단 3차 고별연주회		1원 50전, 1원, 50전
	6.7	8	음악회	이화학당	임배세, 윤성덕, 김활란, 최데이시, 김필린, 이화학당여학생들
	6.17	8	음악회	한양여자찬양대	1원, 50전, 학생 50전, 30전
	6.28	8	특별음악회	조선학생대회	경성악대, 조선정악전습소, 고금남, 이상준, 최동준, 황운봉 등 1원50전, 1원, 50전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9.3	8	동경음악단연주회	창조사	동경음악학교 학생(홍난파, 윤심덕, 杉村寬三, 太田忠, 狩野正賢, 隅田花子 등) 2원, 1원, 50전
	9.16	8	동경음악단연주회	경성악대	동경음악단, 경성악대 등. 50전 균일
	9.23	7:30	동서음악대회	예수교연합회	노정일, 김형준, 나정옥, 백경애, 이재순, 김원복 등 1원, 50전, 30전
	11.26	7:30	경성악대 이주년 기념식		경성악대, 고급남 등
1922	2.4	7:30	신춘음악대회	청년회 소년부	김영환, 최동준, 김인식, 임배세, 라정옥, 부스, 스미스, 그레그, 소년부 관현악단 등 1원, 50전, 30전.
	2.9	7:30	음악회	갈돕회	2월 13일로 연기됨 80전, 학생 40전
	2.11	7	음악회	학생기독교청년회	배재 보드빌 대회, 배재 청년회 도서관 설비 모금 2원, 1원, 50전
	4.4	8	청년회대표자 환영음악회	조선소년당	
	6.7	8	음악회	경성악대	해삼위학생음악단
	6.21	8	상조회발회식	여자고학생상조회	독창과 음악
	7.7	8	음악회	정신여학교음악단	1원
	7.28	8	모범음악대연주회	서울악우회	박항병, 백명곤, 경성악대 등 폭우로 인하여 7/30로 연기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7.31	8	모범음악대회	경성악우회	
	8.1-2	8	해삼위음악단 음악회		8월 4일로 연기됨 1원50전, 1원, 50전
	9.11-12		음악연극회	먼려청년회	음악과 연극
	9.14	8	음악회	조선여자청년회	김영환, 김인식, 김형준, 시산국일랑(柴山國一郎)
	9.25	8	음악회	안동먼려청년회	30전, 15전
	10.12	8	자선음악회	구룡산청년회	
	11.4		음악대연주회	죽남음악연구회	최덕창, 김니콜라이 등
1923	2.3	7:30	음악회	중앙기독교청년회 소년부	경성악대, 김영환, 홍영후, 아펜젤라, 쿡, 김인식, 스미스, 김형준, 김에스더, 최동준 등 1원, 50전, 30전
	4.14	8	특별음악대회	청년회 체육부	1원, 50전
	4.22	8	음악회	계명강습원	80전, 50전, 학생 30전
	5.17, 19		음악회	조선성화청년회	청년회 도서실 설립 목적
	5.18	8:20	음악회	연회전문 청년회	하기학생순회선전비 모금, 시내 각 여학교 음악대, 외국인음악가 출연
	6.2	7:30	제일회음악무도회	예술학원	김영환, 김동환, 윤성로, 김영숙
	6.14.		음악연주회	계명학습원 음악과	홍난파가 합창지휘
	6.26	8	음악무도대회	동아부인상회	윤심덕, 쿡 등
	6.30	8:30	성악대회		윤심덕, 한기주 2원, 1원, 학생 반액
	7.11-12	8	하와이학생음악회		하와이학생음악단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1924	10.13	8	추기음악회	청년회	경성악대, 윤심덕, 윤기성, 홍난파, 이보민 등
	10.18-19	7:30	음악무도대회	묘동찬양대	김원복, 김영환, 윤심덕, 홍난파, 안기영, 김형준 등 1원, 50전
	10.21	7:30	전선남녀전문학교 연합음악대회	조선학생회	이화학당, 경성의전, 경성법전, 연전, 승전, 수원농고, 동경조도전 대학 총7개교 3원, 1원 50전, 50전, 학생 30전
	10.22-23		음악연주회	삼광청년회	
	10.25	7	동서음악대회	고학당협회	윤성로, 김영환, 그레그, 쿡 등 1원50전, 1원, 60전, 학생50전
	10.27	8	계정식고별음악회		계정식, 윤심덕, 김영환 1원50전, 1원, 50전
	11.20	7:30	환등강연음악회	아현교회	시내일류음악가들
	12.3	7:30	음악회	알메니아 고아구제회	부스, 아펜셀라, 쿡 등 1원, 50전
	12.17	7:30	베토벤 탄생기념음악 연주회	동경음악학교 동창회	한기주, 김영환, 윤심덕, 윤기성, 윤성덕, 홍난파, 김합라 등 1원, 50전
1924	1.19.	8	홍난파 제1회 제금독주회	중앙기독교청년회	반주: 김영환
	2.8	7:30	신춘음악대회	청년회 소년부	홍난파, 경성악대, 윤심덕, 윤기성, 김영환, 김형준, 김원복, 안대선, 왈레스, 외국인학 교관현악단, 경성하모니카구락부, 이화합창단, 具孔九, 潘福奇 등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2.13	7	음악무도회	조선학생회	김영환, 홍영후 등
2.23	7:30	만국소년음악대회	종교유년주일학교	독창, 합창, 합주, 유희
3.6	7:30	세계음악무도대회	조선여자강습원	중국, 러시아, 조선음악가 연합
4.3		유점자부인독창회	청년회	유점자, 김애리쓰
4.29	8	음악대연주회	배재기독교청년회	한기주, 이화학당학생 등
5.6	8	음악대회	한강교회유년주일학교	스미스, 반버스크, 김영환, 홍난파, 윤심덕 등 2원, 1원, 50전
5.10	8:30	연전 음악회	연전 학생기독교청년회	홍영후, 김영환, 윤심덕, 스미스, 콕 2원, 1원, 50전, 학생 30전
6.7	8	음악연주대회	근화학원	김애리시, 김영환, 에비슨, 홍난파, 부스, 윤심덕, 한기주, 최영순 등 1원, 50전, 학생 30전
6.13	8:30	콕 송별 독창음악대회	중앙기독교청년회,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콕, 노정일, O비스 등
6.14	8	음악대연주회	경성의전음악부	후스, 스투데니, 김영환, 홍영후, 윤심덕, 한기주, 최영순, 근화코러스 등 2원, 1원, 50전
6.20	8	연악회 음악회	연악회	홍난파, 김앨리스, 아펜젤러, 반복기, 이화학당, 河野孝義, 키, 홍재유, 경성양악대 등
7.2	8	동서음악대회	노동학원	
7.4	8	대음악회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경운회	한기주, 대장용지조, 김영환, 윤심덕, 스투데니 등
7.12	8	러시아음악무도대회		경성에 있는 러시아인들의 모임 80전, 50전, 30전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9.6	8	음악무도회	경성악대	경성악대
	9.30	7:30	동서음악대회	여자고등학교	1원, 50전
	10.10	8	추계음악회	청년회 종교부	경성악대, 노정일, 윤심덕, 윤기성, 김원복, 김형준, 이화학생, 종교찬양대 등 1원, 50전, 30전.
	10.18	8	기근동정음악회	조선여자교육회	한기주, 윤심덕, 노정일, 앤디슨, 김영환, 연악회 등 1원, 50전
	10.30	7	기근구제자선음악무도대회	효진청년단	
	11.14	7:30	자선음악대연주회	우리구락부	김원복, 김형준, 홍난파, 김영환, 윤심덕, 한기주
	11.25	7	음악강연회	조선학생회	윤심덕, 경성제대 블라이스 부인 등
	12.16	7	기근구제동서음악대회	반도소년부	박문영, 방한용 등
	12.18	7	세계명곡대연주회	연악회	베토벤탄생기념. 정원 400명, 베토벤 사진 한 장 씩 증정, 번호표 추첨 2원, 1원, 50전
1925	1.13	7	음악무도대회	혁청단	
	2.7	7:30	신춘음악대회	중앙기독교소년부	김원복, 최동준, 홍난파, 김형준 외 다수
	2.16	7:30	춘기음악대회	만리현미감리교회	반복기, 조은경, 김메리, 박영덕, 이양순, 이화찬양대, 태화교양대 등
	4.4	8	음악대회		스투데니, 후스 1원50전, 1원, 50전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4.28	8	음악대연주회	연악회	『음악계』 창간기념, 구입자만 입장 가능. 홍난파, 김원복, 노정일, 김형준, 김영환, 스미스, 연악회원
5.23	8	만국소년소녀음악대회	종교유년주일학교	스미스, 클락, 노턴 등
6.18	8:30	제2회 음악회	기독교 청년회	스투데니, 후스 찬조: 백명곤, 최동준 1원, 50전, 30전
6.21		춘기음악연주회	연악회	
6.23	8	노동부인위안음악대회	조선여성동우회	조선일류음악가, 독일인악사 등
7.3	8	음악무도대회		이동백 등 유수한 음악가 다수
7.18	8	음악무도회	서울야학동창회	
7.21	8	수난구제음악회	조선여성동우회, 경성여자청년동맹	최동준, 백명곤, 홍재유, 이동백, 김영환 등
7.24	8	수해구제음악무도대회	보전학생단	홍영후, 김영환, 최동준 등
7.25	8	음악회	서울야학동창회	7월 18일이었으나 홍수로 연기됨 1원, 50전, 30전
9.12	7:30	만국여자자음악대회	동대문교회 엠티청년회 사교부	2원, 1원50전, 1원, 50전, 학생반액
9.19	7:30	제일회연주회	경성 4개 악기점	일본하모니카음악단. 악단의 경비는 山葉악기회사가 부담 50전 균일
9.26	8	홍난파제금독주회	연악회	반주: 김원복 1원 균일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10.12	7:30	추기음악대회	YMCA	경성악대, 김원복, 안기영, 최동준, 백명곤, 홍난파, 김영환, 스투데니, 후스 등 2원, 1원
	10.24	7:30	음악회	연악회	김원복, 김형준, 홍난파, 백명곤, 김영환, 후스, 스투데니, 안기영, 최동준, 안대선, 경성악대 등 2원, 1원
	11.3	7:30	음악무도회	가나다회	
	11.18	7	음악무도가극연극대회	노동자구락부 성회	
	11.19	7:30	음악연주회	조선체육회 (서울구락부)	홍난파, 최동준, 백명곤, 김형준, 홍재유, 에드워드(하와이음악단원)
	11.26		음악대연주회	교남학우회	홍난파 등
	11.28	7:30	여자음악대회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여자일류악가들
	12.18		베토벤 탄생기념 음악회		홍난파, 한기주 등
1926	1.16		신춘남녀음악대회	보진친목회	보진현악대, 각여학교 합창단 등
	1.26	7	자선음악대연주회	세브란스의학전문학생청년회	
	2.5	7	신춘남녀음악대회	우리소년회	김영환, 홍난파, 윤심덕, 최동준, 백명곤, 의전음악부 등
	2.11		그랜드 콘서트	연악회	홍난파, 홍재유, 홍지유, 홍성유, 김형준, 박경호, 백명곤, 김원복, 최동준, 아펠첼러 등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2.16	7:30	음악가극대회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피아노, 독창, 합창 등
2.21	7:30	제5회 신춘음악회	청년회 소년부	김영환, 홍난파, 백명곤, 경성악대, 연악회원 등
2.25	7:30	신춘음악대회	조선소년군	1원, 50전, 30전
2.26	7	신춘무도음악대회	반도여자학원	50전, 학생 30전
6.16	8:30	가나다회 음악회	가나다회	
6.18		음악연극대회	근화여학교후원회	배구자, 근화합창대 등
6.26	7	무도대회	조선무도관	가극: 윤심덕, 배구자 등
9.4	7:30	동요음악무용대회	서울소년회	30전, 20전
9.9	7	독창음악회		김문보와 부인 김직자
9.30		청년회음악회	청년회	계정식, 안대선, 홍재유, 최호영, 최동준, 박경호 등 1원, 50전, 30전
10.5	7:30	특별음악대회	협우청년회	후스, 스투데니, 김영환, 왕몽주, 중국인주일학당 코러스, 악아(樂雅)구락부(조선음악). 묘동학원 유지 목적.
10.31		제2회 노동부인 위안음악회	조선여성동우회	필리핀에서 유학한 여류바이올리니스트 정소군(鄭昭君) 출연
11.5	7	경비보충음악회	대동학원유지회	이의식 외
11.8	7	자선음악회	철원동광학원	경성악대 등
11.12	7	자선음악대회	보전진목회학예부	
11.19	7	근화음악대회	근화여학교	23, 24일은 연극대회. 근화합창단, 최호영, 송전음악부, 중앙코러스, 정소군 등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11.20	7:30	위안음악무도회	경성인쇄직공조합	
	11.25		인공위안음악회		
	11.27	7:30	음악대연주회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	최호영, 고봉경, 박경호, 홍재유, 김은실, 경성현악단, 안대선 등 다수 2원, 1원, 학생 50전, 30전
1927	1.27		노동소년위안음악회	반도소년회	1월 23일로 광고된 기사도 있음
	2.26	7	음악무도연극대회	반도학원	
	2.28	7	야학기성음악대회	취운소년회	야학기성회조직 경비보충
	3.12	7:30	음악회	고려금화상회	안수민
	3.19	7	기념음악대회	아희생활사	홍재유, 홍은유, 김원복 등
	5.5	8	문예강연회	문예시대사	최호영, 박경호, 김영숙 등
	5.20	7:30	신입생활영강연음악회	조선학생회	
	8.5	8	납량음악회	중앙악우회	홍난파, 정훈모, 홍재유, 김원복, 중앙악우회 등 1원, 50전, 30전
	10.8	7	유겸자부인독창회	동아일보사	유겸자, 동지사대학여자합창대
	10.29		제2회 연주회	중앙악우회	문함수, 무런, 최영순 이화글리클럽 등 1원, 50전, 학생 30전
	11.12	7	제3회음악대연주회	보성전문학교학생친목회	시종사 후원 1원, 50전, 30전
	11.19	7	세의전 음악회	세브란스의전청년회	제4회 창립기념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11.25	7:30	안병소 독주회	양정고보동창회	안병소, 후스, 스투테니 등
	11.26	7	음악회	고려리드밴드	다수의 악사
1928	1.28	7	자선음악대회	근우회	독고선, 안병소, 김은실, 한기주, 배재악대, 조선정악회 등
	2.15	7	기념음악회	신간회	신간회 창립 1주년 기념
	2.21	7:30	자선음악대회 음악협회 제1회 연주회	조선음악협회	이동백, 심상건, 이준선, 빼커부인 등
	3.3	7:30	제3회 연주회	중앙악우회	중앙악우회 관현악단, 부스, 박경호, 차재일, 이화글리클럽
	3.27	7:30	대음악회(금지됨)	금릉학원	한기주, 김영환, 안병소, 스투테니 등
	4.7	7:30	춘기대음악회	근우회경성지회	홍영후, 김영환, 한기주, 안병소, 이인선, 유심희, 코리아재즈밴드 등
	5.10	7:30	신입생활영음악회	조선학생회	
	5.11	8	채규업독창대회	민중예술동지회	채규업, 김영환 등 80전, 50전, 학생 30전
	6.16	8	강연음악회	정동웹사이트청년회	
	9.9-10		구제음악회	서울청년회	관복수혜이재동포 구제
	9.14	8	권태호 독창회	중앙기독교청년회 사회부	중앙악우회, 권태호, 최호영, 안익태 등
	9.15	7:30	동서음악대회	조선주보	코리아재즈밴드, 홍재유, 안기영, 백명곤, 이동백, 심상건, 한기주, 안병소, 고봉경, 김영환, 최호영 등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9.28	7:30	가배음악대회	안국동교회내 시온회	코리아재즈밴드, 김환란 등 조선정악도 연주
	9.29	8	안기영독창회	정동교회음악부	안기영, 부스, 고봉경, 반주: 김은실 1원
	10.19	7:30	음악간친회	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협회	
1929	3.9	7	동극무도음악회	중앙보육학교 학생회	2원, 1원, 학생 50전
	4.27	8	춘기음악회	피어선학생기독교청년회	안대선, 안기영, 김현순, 홍난파, 중앙악우회 관현악단, 정신, 중앙, 이화합창단
	5.14	8	전춘음악회	서울청년회	양악계 일류명사, 조선교악의 대두 출연 등
	5.25	6	작곡부감상회	조선가요협회	작곡부에서 작곡된 14곡 감상
	5.25	8	동서양음악회	신우회	준비위원 음악부장 안병소, 경북이재동포 구제 1원, 80전, 50전
	6.22	8	안병소 도미송별음악회	연악회	안병소, 안기영, 후스, 스투데니 등
	7.27	8	동서양레코드음악회	세일상회	미국최신식전기자동식축음기 사용
	11.11		세계대전쟁평화기념일음악회		중앙악우회 합창단, 이화합창단 등
	11.29	7	강당중축음악회	청년회	현제명, 최영순, 홍난파, 안기영, 대무린, 이화합창단, 성우회, 중앙악우회 등
	12.5	7:30	음악회	의화소년회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1930	6.19	8	동경고등음악학원 출신 신입환영연주회	중앙보육학교 음악과	김원복, 홍난파, 안익태, 홍성유 등
	7.5		납량음악대회	보성전문학교 학생회	홍난파, 홍성유, 안익태, 안기영 등
	10.25	7:30	음악대회	삼광유치원	안기영, 홍난파, 중앙악우회, 이화보육합창대 70전, 30전
	11.7	7:30	피어선기청 삼주년 기념식, 음악회	피어선학생기독교 청년회	김신복, 김호용, 백귀란, 최호영, 안대선, 피도수, 정신코러스
1931	2.7		평양승실전문학교 순회음악회	승실전문학교	
	6.6	8	안대선송별음악회	피어선고등성경 학원학생회	연전관현악단, 안대선, 대무런, 김영복, 이유선, 서영채, 김장익, 광정순 60전, 40전, 학생 20전.
1932	2.16	7:30	여고보 졸업생 축하음악회	중앙보육학교 학생회	무료초대권 발행. 김영자, 현제명, 독고선, 중보합창단
	4.16	7:30	권태호 독창회		김정순, 권태희, 박태준, 안병소, 부스 등 50전, 30전
	9.23	8	승동기청음악회	경성승동기독교 청년면려회	
	10.8	8	추기음악회	기독교청년회농촌부	안기영 외 1원, 50전, 30전
	10.28	7:30	추계음악회	배재학생기독교 청년회	배재악대, 이화합창단, 안기영, 김현순, 광정선, 독고선, 피도수
1933	4.28	8	레코드음악회	기독교청년회소 년부	세일상회 빅타 후원. 초대권 지참자에 한해 무료 입장

날짜	시간	공연명	주최	내용 및 출연자	
	5.30	8	레코드음악회	기독교청년회	
	6.29	8	레코드음악회	기독교청년회	
	11.4	7	난파트리오 제2회 연주회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홍난파, 홍성유, 이영세 (모두 바이올린 연주) 입장료: 30전
1935	4.25	8	신인소개 연주회	음악사	이용준, 박태철, 김인수, 최성두 등. 최대권 지참자에 한해 입장장내 정리비 10전

Abstract**Concert Hall for the People of Chosun: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Hall in
Gyeongseong**

Yoon-young Cho

Jongro of Gyeongseong during the colonial era was an important activity space for the people of Chosun. In Jongro, which was the border of tradition and modernity and had a clear division of space from Japanese living in Chosu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people of Chosun laid the foothold of ethnic, social, enlightenment, and cultural movements. Jongro especially became an important place for music that needed a performance space.

With the appearance of western music experts in various majors and the increase of Koreans (people of Chosun) who wished to enjoy western music, the demand for concerts started increasing from the 1920s as well. However, since there was no concert hall built in Gyeongseong at that time, most performances were held in multipurpose auditoriums such as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Hall, Cheondogyo Hall, and Gyeongseong Public Hall.

Among them,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Hall received attention as the place of performances for the people of Chosun in Gyeongseong. Various events such as concerts, lectures, and gatherings were held in this hall, which played a pivotal role for cultural events in the 1920s, greatly contributing to Gyeongseong citizens' cultural activities, and had a tremendous impact on the formation of Korean music culture.

This study illustrated an overall picture of modern urban experience through the concert attendance by the people of Chosun at that time, by analyzing different materials printed about the concerts held in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Hall from 1920 to 1935. Especially,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concerts in Colonial Chosun strongly reflected the desire of Koreans to change their life or modernize through concerts, as they were not allowed to participate in politics during the colonial era.

Keywords: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Hall, Concert hall, Music culture, Colony, Gyeongseong, Jongro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25일	2017년 11월 20일 ~ 12월 10일	2017년 12월 11일